

[資料解題]

『紅樓夢』學術資料 目錄 및 解題(2)*

최용철**

< 목 차 >

- | | |
|------------------------|------------------------|
| 1. 紅樓夢의 筆寫本 및 後期版本 | 2. 紅樓夢의 樂善齋本 및 國譯本 |
| 3. 紅樓夢의 海外 翻譯本(日, 英) | 4. 紅樓夢의 續書資料 |
| 5. 紅樓夢의 評點資料 | 6. 紅樓夢의 傳播資料 |
| 7. 曹雪芹의 家世資料 | 8. 紅樓夢의 書目 및 書誌資料 |
| 9. 紅樓夢辭典과 索引 및 註釋 | 10. 紅樓夢의 碩博士 學位論文 |
| 11. 紅樓夢의 定期刊行 學術誌 | 12. 紅樓夢展示會 및 國際會議 |
| 13. 曹雪芹과 紅樓夢관련 文物 | 14. 紅樓夢 歷代 主要論著(淸·民國) |
| 15. 紅樓夢 現代 主要論著(中國·臺灣) | 16. 紅樓夢 現代 主要論著(日本·歐美) |

7. 曹雪芹의 家世資料

『五慶堂重修曹氏宗譜』, 北京 : 北京燕山出版社, 1990.

曹雪芹의 가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족보다. 속칭 「曹雪芹家譜」라고도 한다. 1963년 五慶堂의 후손인 曹儀가 헌납한 책으로 청나라 同治연간에 重修한 것으로 조설근 가문의 始祖와 직계 조부 등의 世系가 잘 나타나 있다. 遠祖는 曹良臣의 三子인 曹俊에서 시작되며 그의 四子인 曹智가 조설근 일가의 직계 조상이다. 始祖인 曹錫遠은 청나라 황실을 따라 북경으로 入城하여 內務府 正白旗에 소속되었다. 高祖인 曹振彥은 도르곤(多爾袞)의 수하장수로 공을 세워 知府에 올랐

* 본 目錄은 『中國學論叢』 제17집(2004.12)에 이어 계속 발표되는 것임.

** 高麗大學校 中文科 敎授

다. 슬하에 曹璽와 曹爾正 두 아들을 두었다. (형제의 이름이 爾玉과 爾正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전자는 璽이고 후자는 합쳐진 글자가 없으므로 이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曾祖 曹璽는 전공으로 內廷二等侍衛를 지내었고 內務府工部郎中으로 올랐다가 江寧織造의 임무를 맡아 南京으로 부임하였다. 이는 부인 孫氏가 康熙帝의 유모였기 때문이었다. 祖父 曹寅은 조씨가문에서 가장 빛나는 문화인물로 강희제의 신임을 받아 어려서부터 입궁하여 伴讀과 御前侍衛가 되었으며 후에 강녕직조에서 康熙帝의 南巡을 네 차례나 영접하였다. 이복동생 曹宣(후에 曹荃으로 개명)은 그림에 조예가 깊어 康熙南巡圖의 제작 감독을 맡기도 하였다. 曹寅의 獨子 曹顥이 강녕직조를 맡았다가 요절하자 曹荃의 四子 曹頌이 曹寅의 양자가 되어 강녕직조를 책임을 이어받았다. 다만 이 족보에 曹雪芹의 이름(본명 曹霑)은 보이지 않고 曹顥의 아들로 曹天佑만 나오고 있으므로 두가지 주장이 야기되었다. 하나는 曹天佑가 곧 조설근이라는 설, 또 하나는 曹頌의 아들일 것이라는 설이다. 이 족보는 1963년 조설근서거 200주년 기념전시회에 처음 공개되었다가 최근 영인되었다.

『**棟亭集**』(4책), 曹寅,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78.

曹雪芹의 祖父인 曹寅의 시문집이다. 曹璽가 江寧織造署의 정자옆에 손수 棟亭(벌구슬나무)을 심었으므로 조인은 이를 기념하여 당시 문인들을 초청하여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도록 하여 『**棟亭圖卷**』을 완성하였다(현존 4권 그림 10폭). 曹寅은 이에 따라 호를 棟亭이라 하고 자를 子清이라 했다. 그의 시문집에는 『**棟亭詩鈔**』 8권, 『**棟亭詩別鈔**』 4권, 『**棟亭詞鈔**』 1권, 『**棟亭詞鈔別集**』 1권, 『**棟亭文鈔**』 1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棟亭詩鈔**』는 康熙51년(1712) 曹寅의 생전에 自編으로 간행되었고 나머지는 그의 사후 門人에 의해 이듬해(1713)에 간행되었다. 이 책은 上海圖書館소장본을 영인한 것으로 「**清人別集叢刊**」의 일종으로 간행되었다.

『**關於江寧織造曹家檔案史料**』, 臺北 : 九思出版社, 1977

曹雪芹 가문의 주요 인물로서 江寧織造를 맡았던 曹寅과 曹顥, 曹頌 등이 궁중에 보낸 奏摺(상주문) 등의 자료를 모은 책이다. 가문이 융성할 때 康熙帝와의

긴밀한 관계, 파직당하기 직전의 雍正帝와의 긴박한 상황 등이 잘 드러나 있다.

『李煦奏摺』, 臺北 : 里仁書局, 1985.

曹寅의 처남, 즉 曹顥의 외숙인 李煦는 蘇州織造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황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다. 雍正원년에 파직당하고 가산은 몰수되었으며 후에 귀양 갔다가 사형당했다. 이 책은 원래 중국의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에 엮은 것이다

『李士楨李煦父子手書—紅樓夢與清初史料鉤玄』, 王利器, 北京 : 北京出版社, 1983.

蘇州織造를 맡았던 李氏父子가 남긴 글을 모은 것이다. 홍루몽의 성립배경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된다.

『孫文成奏摺』, 孫文成著, 莊吉發譯註, 臺北 : 文史哲出版社, 1978.

曹寅의 모친 孫氏는 바로 康熙帝의 유모였다. 孫文成은 바로 손씨의 친가 후손으로 당시 杭州織造를 맡고 있었다. 이 책은 손문성이 滿洲語로 쓴 상주문의 한문번역본이다. 康熙45년(1706)에서 60년(1721)까지의 상주문 20편이 들어있고 康熙帝와 雍正帝가 朱批를 단 漢文상주문17편이 함께 실려있다. 원문은 臺灣 故宮博物館에 소장중이다. 江寧과 蘇州, 杭州의 직조를 맡은 인물들은 황실과 밀접한 관계속에 서로 깊은 관련을 맺은 인척관계였다. 『홍루몽』속의 四大家門과 유사한 관계라고 하겠다.

『懋齋詩鈔』, 愛新覺羅·敦敏, 臺北 : 新文豐出版社, 1977.

敦敏은 右翼宗學에서 조설근과 莫逆之交를 맺은 종실 시인이다. 乾隆23년(1758)에서 29년(1764)까지의 시가 실려 있다. 원래 恩華의 소장이었다가 북경도서관에 收藏되었다. 조설근에게 주는 「贈芹圃」, 「題芹圃畫石」, 「訪曹雪芹不值」, 「小詩代簡寄曹雪芹」 등의 시와 그의 사후 애도시가 들어있다. 원래 1955년 文學古籍刊行社에서 영인한 것이다.

『四松堂集』, 愛新覺羅·敦誠, 臺北: 新文豐出版社, 1977.

敦誠은 돈민의 동생이다. 조설근과 막역지우로 지냈다. 『四松堂集』과 『四松堂詩鈔』, 『鶴梅庵雜志』가 함께 실려있는데 조설근에 관련된 「寄懷曹雪芹(霑)」, 「贈曹雪芹」, 「佩刀質酒歌」, 「輓曹雪芹」 등의 시가 여러 수 들어있어 그의 개성과 기질, 재주 및 만년의 생활 모습을 연구하는 주요 자료가 된다. 원래 1955년 文學古籍刊行社에서 영인한 것이다.

『綠煙瑣窗集』, 富察·明義, 臺北: 新文豐, 1977.

富察明義는 만주족 시인으로서 당시 돈민, 돈성등과도 교류하였다. 그는 『홍루몽』을 읽고 「題紅樓夢」의 제목으로 감상시 20수를 쓴 초기 독자의 한 사람이다. 이 시는 최초의 홍루몽 감상시이기도 하다. 시의 첫머리에 있는 小序에서 “曹雪芹 선생이 지은 『홍루몽』 一部는 풍월변화의 성대함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으로 그 선조는 江寧織造를 지냈는데 작품에서 이른바 大觀園이란 것은 즉 隨園의 옛터를 말한다. 안타깝게도 그 책이 널리 전하지 않아 이를 아는 사람이 적으며 나는 그 필사본을 보았다”고 했다. 제17수까지의 시는 『홍루몽』의 구체적인 내용을 노래했는데 전80회 부분을 반영하고 있으며 제18수에선 「葬花詞」를 언급했고 제19수와 제20수는 총평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시는 초기 필사본의 내용과 전파상황, 작자의 생애 등을 고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春柳堂詩稿』, 張宜泉, 北京: 文學古籍刊行社, 1955.

이 책은 光緒年間の 간본이다. 장의천은 조설근의 친구로서 조설근이 북경교외로 옮겨가서 반궁하게 지낼 때 서로 빈번한 왕래가 있었다. 이 시집 중에는 조설근관련 시가 있는데 「懷曹雪芹溪」, 「和曹雪芹西郊信步憩廢寺原韻」, 「題芹溪居士」, 「喪芹溪居士」 등이 있다. 曹雪芹의 字號와 생졸년, 개성, 기호, 북경서교의 거주환경 등을 잘 보여준다.

『高蘭墅集』, 高鶚, 北京: 文學古籍刊行社, 1955.

고악의 시문집으로 필사본이다. 고악은 정위원을 도와서 『홍루몽』120회본

을 보충, 완성한 사람이다.

『春柳堂詩稿』, 『高蘭墅集』, 張宜泉, 高鶚,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장의천의 시집과 고악의 시집을 함께 간행한 책이다.

『讀紅樓夢隨筆』, 周春, 北京: 中華書局, 1958.

주춘은 乾隆년간에 『홍루몽』을 읽은 초기 독자다. 그가 본 『홍루몽』 중에는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은 초기 판본도 있어서 주목된다.

『棗窗閑筆』, 愛新覺羅·裕瑞,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裕瑞는 청 황실의 종실시인이다. 당시 明義 등과 왕래하면서 조설근과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유가 있었다. 그의 시문집에는 조설근의 품위와 용모, 사람 됨됨이 등을 적은 기록이 있어 훗날 작자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8. 紅樓夢의 書目과 書誌資料

『紅樓夢書錄』, 一粟編. 上海: 上海古籍出版 1981.

『홍루몽』의 출현이후 1954년 10월 이전까지의 관련작품 900여 종을 수집하여 提要를 덧붙이거나 원문을 발췌하였다. 상해고적출판사에서 1958년 초판 발행하였다. 중화서국에서 1962년 증보 재판하였고 상해고적출판사에서 1981년에 새로 출판하였다.

『紅樓夢卷』, 一粟編. 北京: 中華書局 1963.

清代 乾隆년간부터 “五四”까지 약 160년간 『홍루몽』 및 조설근 관련 평론과

고중 방향의 주요자료를 집록한 것이다. 모두 2책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권마다 지어진 연도에 따라 배열되어있고 주로 원시자료에 근거해 집록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실용성이 강하다. 古典文學出版社에서 「古典文學研究資料匯編」의 하나로 1958년에 출판하였고 다시 中華書局에서 1963년 12월 새로 초판 발행하였다.

『紅樓夢敘錄』, 田于編, 臺北 : 漢苑出版社, 1976.

『홍루몽』연구자료공구서이다. 전체 판본, 번역본, 속서, 위작, 평론, 신문, 삽화, 시, 사, 회곡, 영화, 소설 등 12부분으로 분류되어있다. 수록된 자료는 『홍루몽』이 세간에 나온 후부터 본서의 출간이전까지의 관련자료 약 1천여 종이 실려있다.

『紅樓夢敘錄』, 胡文彬編, 長春 : 吉林人民出版社, 1980.

『홍루몽』의 출현이후 1978년 말까지의 『홍루몽』관련연구자료를 수록하였다. 여기에 一粟의 『紅樓夢書錄』중에 미수집된 내용과 다른 부분을 보충하였다. 일부 저서의 서말문을 발췌 수록하고 대만, 홍콩, 국외의 논저가 첨부되어 있다.

『紅樓夢資料匯編』, 朱一玄編, 天津 : 南開大學出版社, 1985.

『홍루몽』관련자료를 모아놓은 것으로 작가편, 판본편, 평론편, 영향편 등 4부분으로 나뉘어져있다. 수록된 자료는 대체로 “五四”운동시기까지의 자료로 매 항목의 자료마다 작가, 권수, 근거판본을 명시하고 있어 연구를 하는데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香港所見紅樓夢研究資料展覽』, 香港 : 香港中文大學, 1972.

홍콩中文大學 중국문화연구소 문물관과 홍루몽전시회팀이 공동편집하였다. 본서는 1972년 3월 24일부터 4월 7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전시회의 자료집이다. 주요 내용은 「前言」, 「신홍학의 발전방향」, 「홍루몽고본설명」 3편의 논문과 판본, 번역본, 홍루몽연구전문가, 논문 등의 소개로 되어있다.

『紅樓夢研究書目(初稿)』, 那宗訓編, 香港 : 龍門書店, 1979.

『홍루몽』 연구공구서이다. 근래 중국내외에서 출판되거나 발표된 『홍루몽』 연구논저목록을 수록하였다. 수록된 서목은 적으나 내용이 상세하다. 분야를 세분화시켜 분류하고 中英文 대조가 되어 있어 열람하는데 편리하다. 1954년부터 1978년까지의 專門論著와 論文이 모두 847개 수록되어 있다.

『紅樓夢研究書目續編(初稿)』, 那宗訓編, 香港 : 龍門書店, 1981.

앞서의 책에 다 넣지 못한 자료들을 모아서 續編으로 만든 것이다. 양자 모두에 「初稿」란 구절이 붙여있다.

『臺灣所見紅樓夢研究書目』, 那宗訓編, 臺北 : 新文豐出版社, 1982.

1982년 이전까지 대만에서 볼 수 있는 홍학관련 전문 논저와 기간논문을 모아 수록하였다. 책 전체가 영문으로 편집되었고 매 항목마다 로마자注音과 漢字가 있다. 권말에 색인을 첨부하여 자료를 찾는 게 편하다.

『紅樓夢研究文獻目錄』, 宋隆發編, 臺北 : 臺灣學生書局, 1982.

본서는 『홍루몽』 연구자료공구서이다. 청대 건륭 중엽부터 1979년까지의 논저 2000여 종을 수록하였고 목록, 판본, 중문논저, 번역본, 일문논저, 서반어어는 문 등 7부분으로 나누어져있다.

『紅樓夢研究論文資料索引(1874-1982)』, 顧平旦,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83.

중국 전역의 간행물에 역대 발표되었던 『홍루몽』 연구논문자료를 수집하고 집대성한 공구서이다. 기간논문과 신문 두 부분으로 분류되어있고 부록으로 홍루몽 연구논문자료 색인서목과 홍루몽외국어 번역본서목이 수록되어 있다.

『紅樓夢最新研究論著目錄(1982-1987)』, 北京 : 北京師大圖書館編, 1988.

1982년 이후 1987년까지 5년여 동안 나온 최신 연구저술과 논문의 목록을

워어넨 것이다.

『臺港及海外中文報刊資料專集特集(紅樓夢)』,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87.

대륙이외에 대만과 홍콩지역에서 발표된 중국어 학술잡지와 신문 등의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것이다.

9. 紅樓夢辭典과 索引 및 註釋

『紅樓夢辭典』, 楊爲珍·郭榮光, 濟南 : 山東文藝, 1986.

『홍루몽』연구공구서로 홍루몽연구소 교주본 『홍루몽』을 근간으로 하여 편집한 것이다. 어휘, 詩詞, 인물, 홍학 네 부분으로 분류되어있다. 「홍루몽 4대가문관 계표」, 「홍루몽대사건연표」, 「조설근연표」가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산둥문예 출판사에서 1986년 10월 출판되었다.

『紅樓夢辭典』, 周汝昌, 廣州 : 廣東人民, 1987.

원로 홍학가인 周汝昌에 의해 만들어진 『홍루몽』전문사전이다. 한어병음 순서로 중요한 어휘를 배열하여 풀이했다.

『紅樓夢鑑賞辭典』, 上海紅學會, 上海師大, 上海 : 上海古籍, 1988.

상해사범대학 孫遜 등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작품의 감상이라는 면에서 다양한 편집방법을 사용하였다.

『紅樓夢人物辭典』, 施寶義等, 南寧 : 廣西人民, 1989.

홍루몽에는 수백 명에 이르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 인물에 관한 설명을 사전식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책이다.

『紅樓夢大辭典』, 馮其庸·李希凡, 北京: 文化藝術出版社, 1990.

백과사전식 전문사전으로 『홍루몽』연구공구서이다. 상하 2편으로 나뉘어있는데 상편에는 홍루몽내용과 관련된 사전항목이 있고 하편은 作家家世交遊, 評本, 翻譯本, 續書, 脂硯齋評語, 紅學語彙, 紅學書目, 紅學人物 등을 수록하였다. 부록으로 각종 홍루몽 관련표와 대관원지도가 들어있다. 권말에 색인을 두어 찾기 편하게 하였다.

『紅樓夢漢英習語詞典』, 桂廷芳 編著, 杭州: 杭州出版社, 2003.

『홍루몽』속의 숙어를 영어로 풀어놓은 사전이다. 항목의 원문은 『신교주본』(홍루몽연구소, 인민문학출판사, 1982)에서 따왔으나 별도로 과거 통행본이던 정을 본계통의 『홍루몽』(인민문학출판사, 1959)에서 참조 항목을 따와 주 항목과 연결시키고 있다. 영문 해석은 楊憲益의 英譯本(북경외문출판사)에서 영문 예문을 추출하였다. 한어병음의 순서로 배열하였고 숙어 2,270항목을 수록하였다.

『紅樓夢人名索引』, 林語堂, 臺北: 華岡出版, 1976.

인명만을 가지고 각 회별로 어디에 등장하는지는 밝히는 얇은 색인 공구서.

『百二十回紅樓夢人名索引』, 邢頌恩·何錦階, 香港: 集賢社, 1984.

120회 홍루몽의 인물의 등장대목 등을 찾기 좋게 정리한 색인.

『紅樓夢人物索引』, 潘銘桑, 香港: 龍門書局, 1985.

인물 색인이다. 오늘날 컴퓨터 시대에는 색인의 필요성이 감소했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색인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石頭記年日考(紀事/情節表)』, 潘銘桑, 香港: 中國學社, 1988.

홍루몽의 초기판본을 근거로(그래서 石頭記로 명명) 사건발생 연월이나 사건내용을 고찰한 책이다.

『紅樓夢語彙索引』, 宮田一郎, 名古屋 : 采華書林, 1973.

일본에서 오래전에 나온 어휘색인이다. 兪平伯이 편집, 교감한 『홍루몽80회 교본』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 중에서 언어적 연구가치가 있는 대련, 고사성어, 속어 등의 구어어휘를 발췌하여 한어병음에 따라 차례대로 편성하였다.

『紅樓夢詩詞曲賦評注』, 蔡義江, 北京 : 北京出版社, 1979.

본문의 詩詞曲賦를 모두 추출하여 해석하고 평가를 내리는 해설서. 『홍루몽』의 운문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가장 이른 저술이어서 영향력이 크다.

『紅樓夢詩詞曲賦評注』, 田禾, 臺北 : 源流出版社, 1982.

앞의 책과 유사하게 詩詞曲賦에 대해 해석한 책. 대만에서 나왔으며 대륙책을 참고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紅樓夢注解』, 毛德彪·朱俊亭, 南寧 : 廣西人民, 1981.

본문의 회수를 따라서 각 회별 난해한 구절이나 시사를 해석하고 풀이했다.

『紅樓夢詩詞解析』, 劉耕路, 延邊 : 吉林文史, 1986.

본문의 시사와 주요 구절을 풀이했다.

『紅樓夢詞語對照例釋』, 李玉敬着, 平松圭子, 東京 : 燎原書店, 1987.

在日 중국인과 일본인이 공동으로 만든 번역 대역어에 관한 전문서다. 이러한 번역문제에 대한 것은 중국에서는 별로 드문 저작이다. 해외 번역작업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책이다.

『紅樓夢小考』, 陳詔, 上海 : 上海古籍, 1985.

『홍루몽소고』는 『홍루몽』에서 언급한 각 방면에 대해 크게 10종류로 분류하여 주해를 달고 고증을 하였다. 본서의 부분적인 내용이 『홍루몽연구집간』1집에

서 11집까지에 게재되었다. 여러차례 수정, 증보를 거쳐 책으로 만들어 저 상해고 적출판사에서 1985년 11월 출판되었다.

『紅樓識小錄』, 鄧雲鄉, 太原 : 山西人民, 1984.

홍루몽 속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요하는 전고와 풍속 등의 내용을 상세히 풀이하였다. 저자는 북경 토박이 출신이었지만 상해에서 거주하였다.

『紅樓風俗譚』, 鄧雲鄉, 北京 : 中華書局, 1987.

세시풍속이나 민간풍속 등의 여러 가지 관련 내용을 쉽게 풀려고 노력한 저작이다. 鄧雲鄉은 TV연속극으로 만들어진 『홍루몽』에서도 민속에 관한 자문을 맡은 바 있다.

10. 紅樓夢의 學位論文(博士, 碩士)

[博士論文]

『脂評研究』, 陳慶浩, 중국문학 박사, 프랑스 : 파리第七大學.

홍콩중문대학에서 潘重規교수아래서 석사학위를 한 저자는 프랑스에서 脂硯齋평어를 대상으로 집중연구하였다. 그가 엮은 『脂硯齋評語輯校』는 후에 中文本으로 臺灣과 中國에서 각각 간행되었다.

『紅樓夢版本研究』, 王三慶, 臺北 :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博士, 1980.

대만에서 가장 이르게 나온 박사논문이다. 潘重規교수의 지도로 판본만을 전문으로 다룬 논문이다. 홍학상의 견해는 潘교수와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종합적인 판본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紅樓夢의 現實批判的 意義 研究』, 高改喜, 서울 : 高麗大學 中文科 博士, 1989.

한국에서 나온 최초의 홍학 박사학위 논문이다. 홍루몽의 주제와 작자의 비판의식, 작품 속의 인간성 억압에 대한 비판과 전제사회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석사논문의 경우도 1979년 국내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清代紅學研究』, 崔溶澈, 臺北 : 臺灣大學 中文研究所, 1990.

청대 홍루몽학을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한 논문이다. 脂硯齋평어를 비롯하여 청대 評點비평과 후대 評論 및 續書와 海外翻譯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조선말기에 나온 樂善齋紅樓夢 등 초기의 국내 번역본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紅樓夢 王張姚三家評點之研究』, 韓惠京, 中國文化大學 中文研究所 博士, 1994.

청대 후기 三家評點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이다. 청말이래 가장 폭넓은 영향력을 가진 三家評本의 평점내용을 구성, 인물, 언어, 상징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紅樓夢賈寶玉情案研究』, 崔炳圭, 臺北 :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博士, 1994.

홍루몽의 주인공 賈寶玉에 대한 인물연구다. 가보옥의 情에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독특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있는 연구다. 가보옥 情案에 대한 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배경을 위시하여 '情不情'의 문제, 가보옥에게 있어서의 情과 淫의 문제를 천착했다.

『紅樓夢의 王熙鳳形象 研究』, 蔡禹錫, 서울 : 韓國外國語大 中國語科 博士, 1997.

홍루몽의 주제에서 또 다른 축을 이루는 홍망성희의 중심인물로 부각되는 왕

희봉을 중심으로 집중 분석을 가한 논문이다. 왕희봉의 성격묘사와 변모양상, 등장인물과의 관계, 사회윤리의식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紅樓夢之文學語言研究』, 李治翰, 北京 : 北京師範大學 中文系博士, 1999.

중국에서 나온 최초의 한국유학생 홍학 논문으로 홍루몽의 언어현상에 대해 분석한 어학논문이기도 하여 주목된다. 문학언어라는 측면에서 홍루몽을 텍스트로 삼아서 분석하였다.

『紅樓夢의 主題와 思想研究』, 李光步, 서울 : 高麗大學 中文科 博士, 2001.

홍루몽의 주제사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주제에 대한 상징과 암시, 서사주선과 주제의 관계, 도교 및 불교와 홍루몽의 주제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紅樓夢에 나타난 情의 敘事化樣相研究』, 趙美媛, 서울 : 延世大中文科 博士, 2004.

홍루몽의 중심 모티브인 情에 대하여 집중 연구한 논문이다. 情의 敘事化라는 관점에서 서구적 이론 체계를 근거로 다양하게 분석하였다.

[碩士論文]

『紅樓夢中詩詞題詠之研究』, 顏榮利, 臺北 : 臺灣大學 中文碩士, 1975.

『紅樓夢戲曲三種之研究』, 許惠蓮, 臺北 : 臺灣大學 中文碩士, 1976.

『乾隆抄本百二十回紅樓夢稿研究』, 王錫齡, 臺北 : 文化大學 中文碩士, 1976.

『紅樓夢中的建築研究』, 關華山, 臺南 : 成功大學 建築碩士, 1978.

『紅樓夢脂硯齋評語新探』, 朱鳳玉, 臺北 : 文化大學 中文碩士, 1979.

『紅樓夢隱語之研究』, 劉榮傑, 臺北 : 文化大學 中文碩士, 1979.

『論紅樓夢研究的傾向』, 高政喜, 서울 : 高麗大學 中文碩士, 1979.

『紅樓夢的文學背景研究』, 崔溶澈, 臺北 : 臺灣大學 中文碩士, 1983.

『紅樓夢所反映的社會與家庭』, 李光步, 臺北 : 政治大學 中文碩士, 1983.

- 『紅樓夢의 主線結構研究』, 秦英燮, 臺北 : 臺灣大學 中文碩士, 1987.
- 『關於紅樓夢主要女性人物之研究』, 舒曼麗, 서울 : 成均館大學 中文碩士, 1987.
- 『紅樓夢後四十回考』, 洪亨杜, 대구 : 慶北大學 中文碩士, 1987.
- 『韓文藏書閣本紅樓夢研究』, 金泰範, 臺中 : 東海大學 中文碩士, 1988.
- 『紅樓夢年月歲時考』, 施鐵民, 臺北 : 臺灣大學 中文碩士, 1988.
- 『王希廉의 紅學研究』, 吳盈靜, 中瀝 : 中央大學 文學碩士, 1990.
- 『紅樓夢十二支曲의 探討 十二支曲에 豫示된 後40回 情節을 중심으로』, 朴智用, 서울 : 淑明女大 中文科碩士, 1991.
- 『紅樓夢의 悲劇性 研究』, 宋眞榮, 서울 : 梨花女大 中文科 碩士, 1992.
- 『紅樓夢이 九雲記에 미친 影響 연구』, 李京丹, 서울 : 淑明女大教育大學院 碩士, 1993.
- 『紅樓夢에 나타난 清代服飾 研究』, 羅海燕, 부산 : 東亞大學 衣類學科 碩士, 1995.
- 『紅樓夢中 林黛玉과 薛寶釵의 比較研究: 兩種愛情觀의 對立을 重點으로』, 鄭英順 (音譯), 목포 : 木浦大 中文科碩士, 1998.
- 『王國維의 紅樓夢評論 研究: 文藝批評史의 意義를 中心으로』, 崔京兒, 서울 : 中央大學 中文科碩士, 1999.
- 『紅樓夢 研究에 대한 批判과 再認識』, 辛明周, 인천 : 仁荷大 教育大學院 碩士, 2001.
- 『紅樓夢에 반영된 道敎와 道家思想』, 金京玉, 서울 : 東國大學 教育大學院 碩士, 2001.
- 『紅樓夢의 人物形象 研究 : 賈寶玉·林黛玉·薛寶釵를 중심으로』, 尹惠映, 대구 : 大邱大學教育大學院 碩士, 2001.
- 『紅樓夢의 索隱的 讀法 研究』, 李成賢, 서울 : 서울大學 中文科 碩士, 2002.
- 『紅樓夢에 나타난 佛敎觀』, 남현옥, 서울 : 淑明女大 中文科 碩士, 2002.
- 『紅樓夢에 나타난 페미니즘적 傾向』, 鄭京子, 서울 : 淑明女大 中文科 碩士, 2003.
- 『樂善齋本紅樓夢 中國語 音韻體系研究』, 李承姬, 서울 : 韓國外大中國語科 碩士, 2003.
- 『紅樓夢의 女性民俗 研究』, 韓雲震, 서산 : 韓瑞大學 情報産業大學院 碩士, 2003.
- 『激流三部曲과 紅樓夢의 比較研究』, 유영수, 서울 : 東國大學 教育大學院 碩士, 2003.
- 『紅樓夢에 反映된 佛敎思想의 分析』, 최중태, 서울 : 慶熙大學 教育大學院 碩士, 2003.

11. 紅樓夢관련 定期刊行 學術誌

『紅樓夢研究專刊』(1-12輯). 香港 : 香港中文大學 新亞書院中文系編 1967-1976.

최초의 紅學전문 학술지다. 潘重規교수에 의해 창간되고 陳慶浩선생 등이 적극 참여하여 만들었다. 마지막 제11집과 제12집은 대만으로 옮겨온 뒤에 속간했으나 그 후 중단되었다. 초기 홍콩과 대만을 중심으로 한 海外紅學의 붐을 잘 반영하고 있다.

『紅樓夢研究集刊』(1-14輯). 紅樓夢研究集刊編委會編, 上海 : 上海古籍出版社 1979-1989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새로운 홍학의 열기를 반영한 간행물이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편찬되어 부정기로 14집까지 간행되었으나 중단되었다.

『紅樓夢學刊』(1-107輯), 中國藝術研究院紅樓夢研究所編, 天津 : 百花文藝出版社1979 -1984/ 北京 : 文化藝術出版社1985-1994/ 北京 : 紅樓夢學刊雜誌社, 1995-2005 現在까지.

중국 홍학연구의 중심이 된 중국예술연구원 홍루몽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정기학술지다. 계간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간행되었으며 금년(2005)부터는 격월간으로 매년 6번 간행하기 시작하였다. 홍학열기가 여전히 식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紅樓』(1-75期). 梅玫主編, 貴陽 : 貴州省紅學會編 1986-2005年 現在.

중국 남방에서 貴陽에서 간행되는 홍학 전문계간지로 매호마다 약 60여 쪽으로 주로 梅玫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지방이라는 비교적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끈기있게 간행되는 홍학잡지다.

『紅樓夢研究』(復印報刊資料), 季刊, 北京: 中國人民大學 報刊資料中心.

中國人民大學의 復印報刊資料의 일환으로 나온 간행물이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홍루몽 관련 논문만을 모아 재간행하였다. 후에 『古代近代文學研究』에 통합되었다.

『石學雜誌』(1-未詳), 張欣伯主編, 臺中: 石學雜誌社 1988.

臺灣에서 한때 나왔던 팜플렛 수준의 전문잡지였으나 곧 중단된 듯하다.

12. 紅樓夢 展示會 및 國際會議

1962-1963년 중국에서 조설근 서거 200주년기념으로 「紅樓夢展覽會」 개최

曹雪芹 故居, 墓地, 大觀園 등의 발굴조사와 학술회의 등 일련의 기념활동을 벌인 바 있었다. 이때 북경 교외의香山에 조설근 고거의 발굴 이후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다.

1964년 일본 도쿄, 오오사카, 키타큐슈 등지에서 조설근 서거 200주년 기념으로 「紅樓夢展」 개최.

日本中國文化交流協會, 朝日新聞社, 1964.11.6 東京에서 開幕.

1972년 홍콩의 香港中文大學 중국문화연구소 문물관에서 「香港所見紅樓夢研究資料展覽會」을 개최.

전시회 목록의 서두에 宋淇의 「신홍학의 발전방향」과 潘重規의 「홍루몽 古本설명」을 수록하였다. 목록은 판본, 번역본, 속서, 전문연구서, 논문 등으로

로 구분하였다.

1980년 미국 위스컨신대학에서 개최(周策縱, 趙岡 등이 주관)

회의 이후인 1983년 논문집 『首屆國際紅樓夢研討會論文集』(周策縱주편)은 香港中文大學에서 出版되었음.

1986년 중국 하얼빈에서 중국최초로 열림(中國紅學會주최, 張錦池 주관)

『中外學者論紅樓—哈爾濱國際紅樓夢研討會論文選』, 北方文藝出版社, 1989.

1992년 중국 揚州에서 열림(中國紅學會주최, 馮其庸, 胡文彬 등).

발표논문은 『紅樓夢學刊』 기념호로 분산 발표되었음.

1994년 대만 中央大學에서 열림(中央大學주최, 康來新주관)

『甲戌年 世界紅學會議 論文集』, 臺灣 中央大學(影印本, 上下).

1997년 중국 北京에서 열림(中國紅學會, 馮其庸, 張慶善 등)

『紅樓夢學刊』 기념호로 간행되었음.

2004년 중국 揚州에서 열림(中國紅學會, 馮其庸, 張慶善 등)

『紀念曹雪芹逝世240周年—2004揚州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 : 文化藝術出版社, 2004.

2005년 한국 高麗大·鮮文大 공동주최(崔溶澈, 朴在淵 주관)

『紅樓夢의 傳播와 翻譯 국제학술회의』, 선문대(국제학술회의), 고려대(국제학술회의).

13. 曹雪芹과 紅樓夢 관련 文物

曹雪芹 塑像(南京烏龍潭 曹雪芹石像, 製作: 謙碩人)

1992년 양주회의 때 남경 오룡담의 조설근석상 제막식에 참석함.

人物木刻(玻璃世界白雪紅梅·薛寶琴/ 中國杭州)

항주에서 구입한 자연 목각, 홍루몽 인물 설보금을 형상화.

紅樓夢金釵酒(四川宜賓紅樓夢酒廠)

사천에서 만든 고량주, 소형 12병에 금릉십이차의 이름을 붙였으며 각각 酒精의 度數가 다름.

紅樓夢學會開催 紀念墨(黃山 徽州)

1997년 北京中國國際紅樓夢研討會 개최기념으로 만든 특제 먹(원판형).

大觀園 담배(香煙)(中國新晃卷煙廠)

대관원 이름으로 만든 담배.

紀念曹雪芹逝世二百四十周年 銀製徽章(上海造幣廠)

상해 조폐창에서 제조한 조설근 서거 240주년 기념 휘장.

紅樓夢紀念郵票

홍루몽인물의 기념우표.

紅樓夢 剪紙藝術(大觀園)

중국 민간예술의 하나인 剪紙, 인천 개항1백주년 기념활동중 자유공원에서 열린 天津工藝團 전시회에서 구입.

紅樓夢 담배곽 그림

홍루몽인물 그림을 성냥곽 표지로 사용했던 견본. 杜春耕 소장본을 영인간행.

紅樓夢人物트럼프(扑克牌)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럼프. 홍루몽 인물이 그려져 있다.

紅樓夢 風俗畫(畫卷)

중국민간에서 유통되던 두루마리 그림의 풍속화. 북경 潘家園에서 구입.

紅樓夢映畫미디어(홍콩)

李菁이 주연하는 홍콩 영화.

紅樓夢映畫CD(중국)

현대작품으로 개조한 홍루몽.

紅樓夢越劇CD(上海大劇院공연극)

錢惠麗 등이 주연한 월극의 공연 장면.

紅樓夢連續劇미디어/CD(36集)

北京 大觀園을 完成하고 촬영한 TV연속극.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 크게 환영 받았다. 후40회 부분은 脂評에 의거하여 현재 통행본과는 일부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曹雪芹連續劇CD(30集)

曹雪芹 逝去 240周年 紀念으로 최근 새로 촬영한 TV연속극이다. 조설근 가

문의 흥망배경을 상상으로 그려내어 묘사하고 있다. 林黛玉과 薛寶釵에 해당하는 李綺筠, 屈惠藍 등에 얽힌 사연이 조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14. 紅樓夢 역대 主要論著(清·民國)

『閱紅樓夢隨筆』, 清·周春, 上海: 上海古籍刊行社, 1963.

홍학사상 최초의 전문 연구서다. 淸 乾隆59년(1794)에 쓴 周春의 자서가 있다. 이 책에서는 『홍루몽』이 金陵 張侯(勇)가문의 일을 서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索隱派의 선구가 되었다. 작품의 주요 줄거리와 인물을 분석하고 부록으로 題紅詩도 실었고 徐鳳儀의 「紅樓夢偶得」 37則도 실고 있다. 萬華齋藏稿本으로 1책이다.

『石頭記評贊』, 清·王希廉, 臺北: 新文豐出版社, 1980.

이 책의 최초 판본은 同治13年(1874)에 吳耀年 刊本으로 나왔다. 원명은 『석두기평찬』이나 1876년에 重刊할 때 『홍루몽평찬』으로 고쳤다. 이 책은 『홍루몽』 평점으로부터 뽑아낸 「大觀園圖說」, 「問答」, 「存疑」, 「石頭記論贊」, 「總評」, 「石頭記分評」, 「評花」, 「音釋」 등 8종의 글이 합쳐진 것이다. 현재 新文豐出版社本은 『홍루몽평찬』의 이름을 쓰고 있지만 체제는 『석두기평찬』의 것을 따르고 있다. 저자명 등 오류가 적지 않다.

『讀紅樓夢隨筆』, 清·佚名氏, 成都: 巴蜀書社(筆寫本影印), 1984.

총책 8책, 총 15만자. 제1책에서 『홍루몽』의 사상, 예술 및 작자를 논하고 나머지 7책에서는 각 회별 내용 소개와 분석을 가하고 있는데 제69회에까지 이르고 있다. 四川省圖書館에 소장된 필사본이다. 鄭州大學圖書館에서 이와 비슷한 『讀紅樓夢隨筆』 필사본 8책 짜리가 있는데 자자 서명에 「武林秋藩洪錫綬管見」이라고 쓰여 있다.

『紅樓夢評論』, 清·王國維, 臺北: 天華出版, 1979.

王國維의 이 글은 원래 1904년 『教育叢書』 제8-13기에 발표되었고 이듬해인 1905년 『靜安文集』에 수록되었다. 이 글은 홍학사상 중대한 영향을 끼친 평론이다. 그는 기존의 清代 紅學의 범위를 뛰어넘어 『홍루몽』을 우주의 대저술로 간주하고 특히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아 작품의 비극적 결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홍루몽』의 주제 사상을 인생의 고통과 해탈의 도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 이 책은 바로 厭世解脫의 정신을 구비한 비극적 작품이라고 강조하였다.

『大窩譚紅』, 清·吳克岐, 揚州: 廣陵書社, 1986.

이 책은 序文에 의하면 『戚序本』과 2종의 殘抄本을 근거로 廣百宋齋本 『石頭記』를 교감한 讀書筆記다. 본서에는 「紅樓夢正誤」와 「紅樓夢正誤補」, 「紅樓夢正誤拾遺」 등이 실려 있다. 이 책은 民國初年(1912)에 이뤄졌으며 『小說世界』(5권1기)에 「紅樓夢中的錯字」1편을 발표한 바도 있다. 작자 吳克岐는 清末民初 사람이지만 『홍루몽대사전』의 표기를 따라 淸人으로 하였다.

『懺玉樓叢書提要』, 清·吳克岐,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筆寫本影印), 2002.

이 책은 『홍루몽』의 版本, 續書, 詩文, 雜記 등 각종 著作 60여종에 대한 提要와 評論을 묶은 것이다. 총 3권으로 1권에는 각종 판본과 속서, 2, 3권에는 시문과 잡저에 대한 해제를 싣고 있다. 이 책에는 蔡元培, 胡適의 글에 대한 提要 등 民國 시기의 紅學著述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紅樓夢索隱』, 王夢阮·沈瓶庵,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0.

이 책은 『홍루몽』 색은과의 대표작이다. 작자는 『홍루몽』의 전체 줄거리와 인물의등장이 淸나라 世祖(順治帝)와 董鄂妃(원래 秦淮名妓 董小宛)과의 사랑 이야기를 影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문은 1913년 悟真道人的 명의로 쓰였으며, 권두에는 「淸世祖五臺山入定真相」 1편을 수록하였다.(대만판에는 없음) 120회 전문을 수록하면서 평점형식으로 「索隱」을 넣었다.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여 억지로 부합시키려는 주관적 주장이 강하다. 淸史전문가 孟森的 「董小宛考」에서 반박

한 바 있다. 1914년 『中華小說界』(제1년 6-7기)에 발표한 바 있고 1916년 上海中華書局에서 간행하였다.

『石頭記索隱』, 蔡元培, 上海: 上海商務印書館, 1917.

蔡元培는 북경대학 총장을 지낸 신문화운동의 대표주자다. 그의 『석두기색』은 『홍루몽』을 康熙연간의 政治小說로 보려고 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反清復明으로 보려고 하는 색은파의 대표작이다. 소설 속의 사건과 인물을 청나라 역사상의 사건과 인물과 구체적으로 대비시켜 賈寶玉을 太子胤礽로 보고 十二釵를 각각 주이존, 고사기, 서건학, 강서명 등의 명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清末에 한족의 부흥과 혁명을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사고방식을 철저히 담고 있다. 이 책은 간행이전에 1916년 『小說月報』(1-6기)에 발표된 바 있다. 1917년 간행된 이후 1930년까지 10판을 넘어 구홍학의 색은파 대표작으로 명성을 날렸다. 훗날 潘重規교수 등의 그의 이론을 재정립하여 뒤를 이었다.

『紅樓夢釋眞』, 鄧狂言, 上海: 上海民權出版部, 1919.

본서는 120회 본문에 평론방식으로 「釋眞」을 넣어 『홍루몽』의 眞意를 밝히고자 한 책으로 사실은 색은파의 집대성 저술이다. 작자는 『홍루몽』을 明清興亡史라고 보고 曹雪芹이 「增刪五次」를 한 것은 청나라 초기의 다섯 朝代인 崇德, 順治, 康熙, 雍正, 乾隆시기를 쓴 것을 이른다고 하고 賈寶玉은 順治황제 혹은 乾隆황제를 영사한 것이고 平兒는 柳如是 혹은 尹繼善을 영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紅樓夢考證』, 胡適, 『胡適文存』卷三(亞東圖書館)에 수록, 1921.

胡適은 新紅學의 대표 학자로 考證派의 선구자다. 그는 舊紅學에서 유행하던 索隱派의 기풍을 일소하고 作者의 生涯과 家門, 筆寫本의 傳播, 版本의 刊行 등에 관하여 계통적인 연구를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작자를 曹雪芹으로 확정하고 그가 江寧織造로 남경에서 활약한 인물 曹寅의 손자이며 부친 曹頌가 雍正연간에 삭탈관직되어 北京으로 이주하였으며 曹雪芹은 몰락한 가문의 성쇠를 그렸고 미완성된 이 작품은 훗날 高鶚에 의해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의 홍학 연구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에 의하여 상당히 폭넓은 범위로 발전하였다.

『紅樓夢辨』, 俞平伯, 上海 : 上海亞東圖書館, 1923.

유평백의 『홍루몽변』은 호적의 신흥학 연구를 이어받아 이룩한 새로운 성과다. 上中下 3권으로 나뉘어진 이 책은 상권에서 高鶚의 後四十回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고 중권에서 曹雪芹과 前八十回를 고찰하였으며 하권에서는 기타 續書와 雜文으로 이뤄져 있다. 이 책에서는 『홍루몽』을 작자의 自敘傳, 色空觀念의 활용, 懺悔錄적인 작품성격, 보차와 대옥의 釵黛合一論, 원망하되 분노하지 않는다는 怨而不怒論 등의 관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훗날 유심주의 철학적 관점이라는 이유로 1954년 「홍루몽연구사건」의 회오리속에서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되었지만 오늘날 상당부분은 복권된 상태다. 1923년 上海亞東圖書館 간행, 1973년 人民文學出版社 重排本.

『紅樓夢本事辨證』, 周鵬飛, 上海 : 上海商務印書館, 1927.

이 책은 蔡元培의 『石頭記索隱』 영향하에서 나온 저술로 『홍루몽』 본문의 本事에 고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체는 索隱 작업을 한 것으로 역시 초기 색은과의 저술이다. 이 책은 『紅樓夢』이 淸世宗(옹정제)과 諸兄弟間的 帝位투쟁에 관한 일로서 胡適이 주장하는 曹雪芹 자서전설을 부정하고 작자는 『四馬齋集』을 지은 曹一士라고 강조하고 있다.

『曹雪芹家世新考』, 李玄伯, 『故宮週刊』에 발표, 1931.

이 책은 1931년에 발견된 故宮소장 朱批奏折 중에서 曹寅상소문 180건, 曹顥상소문 17건, 曹頌상소문 46건 등의 신자료를 중심으로 기존의 曹雪芹연구성과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글이다. 曹雪芹家世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저술이다. 모두 11절로 되어 있는데 曹氏가문은 旗人(만주인)이 아니고 漢人이며, 曹寅의 아들은 曹顥이고 曹頌는 그의 양자이며, 曹顥과 유복자, 曹寅의 딸, 曹寅과 康熙帝의 밀접함, 曹寅과 曹頌의 공금부족, 曹頌의 말로, 曹氏가문과 李煦의 관계 등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1931년 『故宮週刊』(84-85기)에 발표되었다.

『紅樓夢真諦』(石頭記真諦), 梅景九, 西京出版社, 1934.

이 책은 索隱派 紅學 논저의 또 다른 대표작이다. 저자는 『홍루몽』의 원전이 망국의 슬픔을 견딜 수 없어 두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明清興亡의 내막을 숨기고 망국의 아픈 상처를 가슴속에 묻은 채 써낸 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당시까지 나온 색은과의 갖가지 내용을 종합한 책이라고 하겠다. 또 당시 사회민주주의의 사상도 일부 영향을 끼쳐 작자가 平民정신을 견지하고 있다고도 하였다. 상하2권으로 상권에는 綱要, 敘論, 先論命名, 次論薛林取姓, 次論漢滿明清 등이 있고 하권에는 王夢阮과 鄧狂言의 책에 대한 서평 등이 실려있다.

『金紅勝語』, 姚靈犀, 天津: 天津書局, 1940.

이 글은 『금병매』와 『홍루몽』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저자의 札記集 『瓶外置言』에 들어있는데 모두 103조에 이른다. 훗날 이처럼 이 두 작품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연구자는 적지 않다. 홍콩학자 梅節의 서재명 夢梅館도 『홍루몽』과 『금병매』를 함께 연구하는 곳이란 의미에서 명명된 것이다.

『紅樓夢研究』, 李辰冬, 臺北: 臺灣 正中書局, 1977.

이 책은 저자의 프랑스 박사학위논문의 중국어판이다. 1934년 파리 노트르담출판사에서 나온 프랑스어판 『홍루몽연구』를 번역하여 1942년 重慶中正書局에서 간행했다. 서양문학의 관점에서 조설근과 『홍루몽』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학술 논저다. 저자는 『홍루몽』이 셰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위대한 작가라고 보았다. 이 책은 「조설근의 시대와 인생관」, 「홍루몽의 중요인물」, 「홍루몽의 세계」, 「홍루몽의 예술가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만판에서는 潘重規의 글을 부록을 실고 있다.

『紅樓夢新考』, 方豪, 『中外文化交通史論集』에 수록, 重慶: 重慶獨立出版社, 1944.

이 책의 부제는 「從研究書中外國物品所得之結論」이다. 주로 『홍루몽』에 나오는 외국관련 지명과 물품, 인물, 어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고증을 가한 연구 성과다. 『홍루몽』에 나오는 서양 물품으로는 패종시계, 자동기선, 움직이는 인형,

양칠기물, 비연호(향수병), 서양경대, 유리기물, 서양약품, 포도주, 태국의 차, 공작털 외투, 서양화 등이다. 이들의 중국전래 시기를 고증하고 청나라 황실과의 관련, 조설근 가문과의 관련을 고찰하였다. 또한 작품의 주인공에 대해 조설근의 자서전적 요소가 많기는 하지만 기타 청 황실인물이나 귀족의 활약상이 섞여있고 가보옥이 조설근을 모델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기타 여러 인물이 혼합되었으며 『홍루몽』의 초고는 조설근의 선대에서 먼저 기초를 했으며 이를 조설근이 刪改하여 확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紅樓夢人物論』, 太愚(王崑崙), 國際文化服務社, 1948. 北京: 北京三聯書店, 1983.

이 책은 홍학사상 인물의 형상과 분석을 위주로 집중 연구한 첫 번째 저술이다. 신흥학의 새로운 연구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훗날 북경부시장까지 지낸 인물이어서 이 책은 비록 민국시절에 나왔지만 공개적으로 대만에서 재평가되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해져 읽히고 있었다. 花襲人, 晴雯, 秦可卿과 李紈, 探春, 平兒와 小紅, 王熙鳳, 史湘雲, 薛寶釵, 林黛玉, 賈寶玉 등 총 19편의 인물론을 담고 있다.

(다음 호에 繼續)

< 後記 >

지난해 「紅樓夢의 傳播와 翻譯」을 주제로 高麗大學校 中國學研究所와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에서 共同으로 國際紅樓夢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되었다. 필자는 이 기회에 일부 『홍루몽』 번역자료를 국제회의장 전시회에 출품하는 하는 한편 고려대 중국학연구소에서 별도의 「홍루몽학술자료 전시회」를 갖게 되었다.

본 목록은 당시 전시회를 위하여 마련한 『목록 및 해제집』을 일부 수정하여 만든 것으로 국내 紅學연구의 진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하며, 이것을 계기로 관련 학술자료를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작업을 이어가고자 한다.(研紅軒/ 2005. 9)